

Quantum Leap 2024*

- 글로벌 지역을 품은 글로벌 대학
- 앞선 연구 특성화·융합 연구 지원
- 열린 교육 도전, 소통, 창의 인재
- 산학 협력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 성과 경영 지속가능한 운영 체제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동아는 지금

116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6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
116

-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함께 길을 묻고,
그 길에 역사를 만들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건물은 그 자체가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다.
1925년 준공 이후 경남도청,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으로 사용한 유서 깊은 근대문화유산이다.
'동좌문도(同坐問道)'의 교육철학을 강조한 석당 정재환 선생이
1959년 석당박물관 개관 이후 2009년 이곳에서 이전 개관, 동아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동이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6호)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효민디앤피 051)807-5100

미래를 위한 변화의 선두 동아대학교의 116번째 소식

Issue Focus	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아, 미래 산업을 선도하다		
	08	60여 년 전통의 동아대 학군단, 명문의 전통 이어가다		
Hot News	12	개교 74주년 기념식 개최	18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13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7명 선정	19	잇따른 훈장·표창 수상
	14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 캠페인	20	신진 연구자·최초혁신실험실 선정
	15	첨단 캠퍼스 인프라 구축 활발	21	각 분야 교수들 학술상·공로상 수상
	16	연구활동 지원역량 A등급	22	각종 경진대회 학생 수상
	17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 획득	23	석당박물관 유물 국가 보물 지정
Dong-A People	24	한계를 넘어 정상으로 '기생충' 제작자 박신애 동문		
	26	불안의 시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식품영양학과 김요연 교수		
	28	성실함에 따뜻함을 더하다. 의학생명공학과 정민기 학생		
Happy Donation	30	발전기금 기부현황	42	'후원의 집' 소개
	40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43	기부 및 납부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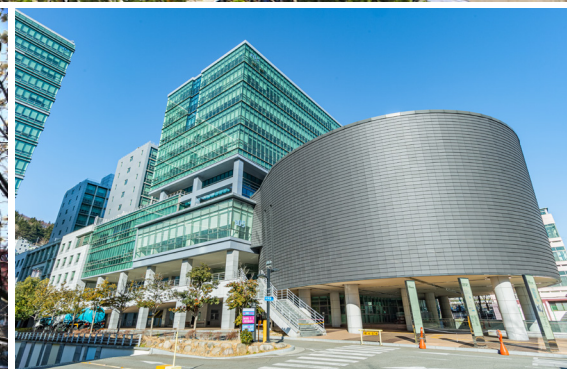
▲ 승학캠퍼스 전경



▲ 대학본부 건물



▲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 부민캠퍼스 국제관

미래 산업을 선도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동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대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비대면·원격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붙은 산업의 스마트화, 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러한 대전환기를 맞아 동아대학교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구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희망의 신호탄은 쏘졌다. 부울경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 요람으로 동아대가 재도약하고 있다.

‘BK21’ 선정으로 연구 사업 박차

동아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4개 교육연구단과 2개 교육연구팀이 최종 선정됐고, 이들 6개 사업단은 7년간 약 1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4단계 BK21 사업은 신산업 및 기초학문 분야 등에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과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다. 동남권 사립대학 최다 수준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동아대는 참여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원 및 연구 분야를 집중 지원해 ‘특성화 강소 대학원(Hidden Champion)’을 육성한다.

BK21 사업에 동아대의 6개 사업단이 선정된 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학교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 활성화와 연구역량 혁신에 박차를 가해 최고 수준의 R&D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BK21’ 최종 선정 부문

❖ 교육연구단

- 미래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조완섭 교수, 건강과학과)
- ICT 융합 해양스마트시티 방재인력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정재 교수,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연구단(이현상 교수, 화학공학과)
- 학연병산 네트워크 기반 퇴행성질환 신약개발 인재양성사업단(윤진호 교수, 중계의과학과)

❖ 교육연구팀

- 글로벌 관광 SDGs 교육연구팀(최규환 교수, 관광경영학과)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교육연구팀(홍순구 교수, 경영정보학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특성화대학원

지난해 정부는 그린 뉴딜을 이끌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으로 총 10개 대학, 11개 과정을 선정했다. 그린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해 온 동아대 대학원은 응용생명과학과, 조경학과의가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



▲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 ▲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

다. 이로써 응용생명과학과는 3년간 29억 7천만 원, 조경학과는 녹색복원 분야에서 3년간 21억 원 등 모두 50여 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 분야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脫) 플라스틱’, ‘녹색금융’ 분야에서 그린 뉴딜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에 필요한 석·박사급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영기술을 갖춘 녹색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낙동강 지역 환경과 생태 복원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양성, 국가와 지역의 녹색복원 교육 및 스마트 녹색 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로 비상, 드론 산업의 허브

동아대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의 ‘산업기술

기반구축혁신사업’에 최종 선정돼 ‘Daas(Drone as a Service)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의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은 부산시 드론 산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금형 제작 지원, 시험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동아대는 4년간 총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송학캠퍼스 내 연면적 5,680.5㎡ 규모의 ‘드론 허브센터’도 유치하게 됐다. 학교는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경제진흥원과 협력으로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 국내 드론 기업 정보 교류 시스템 개발, 드론 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내 드론 산업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물류·관리 시스템 선도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AM은 화물과 승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유지보수, 제조, 판매 등 포괄적 개념의 차세대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으로, 4차 산업과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함께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번 사업에서 동아대는 송학캠퍼스에 들어설 부산드론허브센터와 연계해 핵심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부산 주력 산업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토지·건축 등 행정 지원,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및 수행 등을 담당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게 UAM 산



▲ 드론 허브 센터 조감도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선정... ‘그린뉴딜’ 선도

국민대·동아대 등 10개 대학 11개 과정 사업 수행 3년간 최대 30억 원 지원

녹색융합기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그린뉴딜’을 이끌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11개 과정을 선정, 3년간 원분기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대학 10개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으로 총 10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 등은 올해 9월 9일 교도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두 달간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성과목표 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생물소재 분야’에는 국민대·동아대, ‘녹색복원 분야’에는 동아대·부산대·삼천대, ‘탈(脫) 플라스틱 분야’에는 서울과학기술대·서울시립대·연안대, ‘녹색금융 분야’에는 연세대·인하대·ASIST(연국과학기술원)가 각각 선정됐다.

융합산업기술원은 신청된 대학과 사업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분야 지원금은 대학별 3년간 총 15억 원 내이다. 나머지 분야는 대학별로 3년간 총 30억 원 내로 지원한다.

‘생물소재 분야’는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추진, 임상 분석, 생체외 제조·평가 등 특성 평가를 통해 모방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분기사서 활용 전환제, 제조 설계 개발, 미생물공학 활용 박사학위발령방안 등이 대표적 예이다.

‘녹색복원 분야’에서는 오염지점과 지속가능성, 환경영향 평가 등 기초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할 수 있다. 환경영향의 생장 동역학 분석을 통한 기술 또는 설계·시공 등을 포함하는 녹색복원기술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탈(脫)플라스틱 분야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 환경오염, 인쇄-생태 이해형 평가 기술과 저탄소기술 전문에 관한 실용적인 이론적·응용,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녹색금융 분야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녹색산업의 성장·서비스 성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선정된 대학은 환경분야 등 1개 이상의 학과 융합 학과(팀)이나 트랙과정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및 현장 실·제시 학과(팀)을 운영한다. 이렇듯 학점을 보장해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대학원을 운영한다.

환경기 관장부 장관은 “새롭게 열린가나 확대되고 있는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양성된 인력이 융합 현장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생장 동역학 분석을 통한 기술 또는 설계·시공 등을 포함하는 녹색복원기술 전문인력이 양성된다.”고 했다.

해원 기자 govwin@net

▲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보도



▲ 부산 도심형항공모빌리티 기반 조성 협약식

업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동아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AI 기반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향후 모든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아대는 국내 항만시설의 안전 강화와 항만운영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 항만유지보수에 필요한 ‘ICT 융합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교내 구축되는 5G 기반의 드론,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항만 노후시설 점검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동아대는 지난 2월 인텔코리아와 ‘AI실증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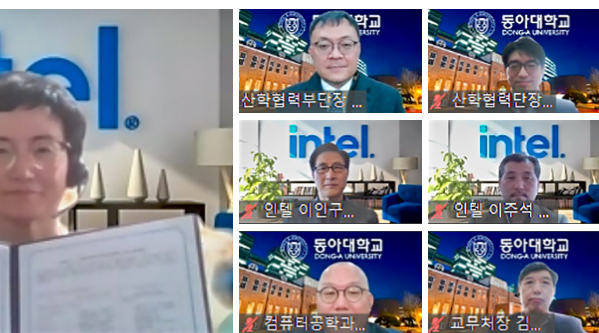
▲ AI실증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



▲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협약식

해 △AI실증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AI기반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AI 디바이스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등 AI실증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DAU AI실증연구센터’ 설립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와 글로벌 기업, 지역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AI 디바이스 기반 디지털트윈 실증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 스마트 재난안전 등 연구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대는 지난해 8월 이 총장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과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 특성화 연구’, ‘미래형 학사구조 및 마이크로 모듈 전공제’, ‘동아 리더스 선순환 취·창업 지원’ 등으로 동아 혁신 브랜드의 구축·확산을 천명했다. 특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통해 학생·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으며 ‘D.N.A 기반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컴퓨터·AI공학부를 개편, AI학과를 신설하는 등 AI산업 부문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승학캠퍼스 전경



▲ 대학본부 건물



▲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 부민캠퍼스 국제관

미래 산업을 선도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대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비대면·원격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붙은 산업의 스마트화, 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러한 대전환기를 맞아 동아대학교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구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희망의 신호탄은 쏘졌다. 부울경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 요람으로 동아대가 재도약하고 있다.

‘BK21’ 선정으로 연구 사업 박차

동아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4개 교육연구단과 2개 교육연구팀이 최종 선정됐고, 이들 6개 사업단은 7년간 약 1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4단계 BK21 사업은 신산업 및 기초학문 분야 등에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과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다. 동남권 사립대학 최다 수준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동아대는 참여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원 및 연구 분야를 집중 지원해 ‘특성화 강소 대학원(Hidden Champion)’을 육성한다.

BK21 사업에 동아대의 6개 사업단이 선정된 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학교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 활성화와 연구역량 혁신에 박차를 가해 최고 수준의 R&D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BK21’ 최종 선정 부문

❖ 교육연구단

- 미래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조완섭 교수, 건강과학과)
- ICT 융합 해양스마트시티 방재인력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정재 교수,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연구단(이현상 교수, 화학공학과)
- 학연병산 네트워크 기반 퇴행성질환 신약개발 인재양성사업단(윤진호 교수, 중개외과학과)

❖ 교육연구팀

- 글로벌 관광 SDGs 교육연구팀(최규환 교수, 관광경영학과)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교육연구팀(홍순구 교수, 경영정보학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특성화대학원

지난해 정부는 그린 뉴딜을 이끌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으로 총 10개 대학, 11개 과정을 선정했다. 그린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동아대 대학원은 응용생명과학과, 조경학과가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응용생명과학과는 3년간 29억 7천만 원, 조경학과는 녹색복원 분야에서 3년간 21억 원 등 모두 50여 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 분야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脫) 플라스틱’, ‘녹색금융’ 분야에서 그린 뉴딜과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석·박사급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영기술을 갖춘 녹색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낙동강 지역 환경과 생태 복원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양성, 국가와 지역의 녹색복원 교육 및 스마트 녹색 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래로 비상, 드론 산업의 허브

동아대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의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에 최종 선정돼 ‘Daas(Drone as a Service)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의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은 부산시 드론 산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금형 제작 지원, 시험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동아대는 4년간 총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승학캠퍼스 내 연면적 5,680.5㎡ 규모의 ‘드론 허브센터’도 유치하게 됐다. 학교는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경제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 국내 드론 기업 정보 교류 시스템 개발, 드론 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내 드론 산업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 드론 허브 센터 조감도



▲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 ▲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선정... ‘그린뉴딜’ 선도

국립대·동아대 등 10개 대학 11개 과정 사업 수행 3년간 최대 300억원 지원
녹색융합기술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영기술을 갖춘 녹색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낙동강 지역 환경과 생태 복원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양성, 국가와 지역의 녹색복원 교육 및 스마트 녹색 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 분야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脫) 플라스틱’, ‘녹색금융’ 분야에서 그린 뉴딜과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석·박사급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정영수 응용생명과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영기술을 갖춘 녹색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낙동강 지역 환경과 생태 복원에 특화된 기술인재를 양성, 국가와 지역의 녹색복원 교육 및 스마트 녹색 기술 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부산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보도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 분야	
<p>생물소재 생물 유래 소재 발굴·추출 - 합성·분석 - 평가</p>	<p>녹색복원 오염 저감, 지속가능성 등 기술, 설계·시공</p>
<p>탈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기술</p>	<p>녹색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서비스에 자금 제공</p>



▲ AI실증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



▲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협약식

차세대 물류·관리 시스템 선도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AM은 화물과 승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유지보수, 제조, 판매 등 포괄적 개념의 차세대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으로, 4차 산업과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함께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번 사업에서 동아대는 승학캠퍼스에 들어설 부산드론허브센터와 연계해 핵심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부산 주력산업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토지·건축 등 행정 지원,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및 수행 등을 담당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게 UAM 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동아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AI 기반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 향후 모든 항만시설물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아대는 국내 항만시설의 안전 강화와 항만운영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 항만유지보수에 필요한 ‘ICT 융합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교내 구축되는 5G 기반의 드론,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항만 노후시설 점검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동아대는 지난 2월 인텔코리아와 ‘AI실증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실증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AI 기반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AI 디바이스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등 AI실증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DAU AI실증연구센터’ 설립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와 글로벌 기업, 지역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AI 디바이스 기반 디지털트윈 실증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 스마트 재난안전 등 연구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대는 지난해 8월 이 총장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과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 특성화 연구’, ‘미래형 학사구조 및 마이크로모듈 전공제’, ‘동아 리더스 선순환 취·창업 지원’ 등으로 동아 혁신 브랜드의 구축·확산을 천명했다. 특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 사업을 통해 학생·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으며 ‘D.N.A 기반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컴퓨터·AI공학부를 개편, AI학과를 신설하는 등 AI산업 부문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2018년 5월 개관한 학군단 역사관



▲ 남영신 대장과 학군 후보생들



▲ 하계전투지휘자훈련 출정식



▲ 승학캠퍼스 학군단 건물

60여년역사 동아대 학군단 명문의 전통 이어가다

지난 1961년 우리나라에 처음 창설된 16개 학군단 중 하나인 동아대학교 학군단엔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는다. 1981년 학군단 동문회 최초 창설, ROTC 최초 공병 병과장 배출, 2018년 전국 학군단 중 최대 규모의 역사관 최초 개관 등이 그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엔 '창군 이래 최초 비(非)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배출'이란 엄청난 타이틀까지 달게 됐다.

수많은 장교를 길러낸 산실

동아대 학군단(단장 국민수 대령)이 '비육사 출신 최초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하는 등 명문 학군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남영신(교육학과 81학번, 학군 23기) 육군참모총장은 동아대 출신 최초의 4성 장군이자 ROTC 역사에서 일곱 번째 4성 장군에 해당한다.

동아대 학군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장교를 길러냈다. 특히 지난 2009년 첫 장군인 정종민 예비역 소장(토목공학과 78학번, 학군 20기)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인 남영신 대장, 고현석 준장(산업공학과 87학번, 학군 29기), 이종언 준장(물리학과 87학번, 학군 30기)까지 4명의 장군을 배출했으며, 지난해 임관한 58기 소위까지 전국 각지 최일선에서 수 백여 명의 동아대 출신 장교가 근무 중이다. 선배들 못지않게 후보생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육군교육사령부 최우수학군단 선정(통산 10회)을 비롯해 교육사열 우승 11회, 하계입영훈련 1위 8회, 임관성적 1위 대통령상 수상자 3명 배출, 지난해 기초군사훈련 및 하계전투지휘자훈련 상위권 다수 포진 등 우수 학군단의 전통을 자랑한다.



▲ 학군단 역사관을 방문한 남영신 대장



▲ 지난해 9월 남영신 대장 취임식

부산·경남 최다 여학생 학군 장교

동아대 학군단은 지난 2012년 입단한 52기부터 여학생에게 문을 연 후 여자 학군 장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부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학생을 선발, 2020년 기준 학군사관후보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는다.

대학별 정원에 따라 선발하는 남자 후보생과는 달리 여자 후보생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나뉜 정원을 각 대학 여학생간 통합 경쟁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경쟁이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동아 학군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 후보생이 대대장으로 임명돼 큰 화제가 됐다. 주인공인 유현경 소위(독어독문학과 16학번, 학군 58기)는 2019년 1학기에 대대장이 돼 뛰어난 리더십으로 동기 후보생들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대장은 해당 학년 후보생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로,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학과성과 훈련성적, 체력, 동기 평가 등을 종합해 교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학군단장이 최종 선발해 임명한다. 유 소위는 학업과 학군단 역할을 충실히 해낸 후 지난해 3월 소위로 임관, 오는 3월 중위로 진급한다.

든든, 탄탄한 학교 지원

학군단의 이러한 성과 바탕엔 학교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 동아대는 학군단을 대학 총장 직속기구로 두고 입영 훈련과 국내외 탐방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예산, 후보생 장학

금, 교육장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부임한 이해우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학군단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하계전투지휘자훈련 기간에 코로나19와 장마로 후보생 격려방문 일정이 취소되자 직접 쓴 메시지를 담아 위문품과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동문 선배들의 후배 사랑도 끈끈하다. 후보생들이 임관종합평가를 준비할 때 선배들이 도시락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으며 각종 전자기기 지원, 후보생 격려방문 정례화 및 격려금 전달, 장학금 및 해외탐방 예산 일부 지원, 동문 선배와의 대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대 학군단의 60여 년 빛나는 역사는 학군단 역사관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역사관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과 대학 지원으로 건립을 추진, 지난 2018년 5월 정식 개관했다. 기부자들의 이름을 비롯해 학군단 연혁과 주요 성과, 역대 동문회장 및 학군단장, 역대 임관자 명단, 연대별 주요 물품, 역대 학군단복 및 군복 등이 보존돼 있다. 교직원과 학생, 학군단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대학의 명소가 된 학군단 역사관은 ROTC 지원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장교라는 진로를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 학군단장은 “학군장교는 군에서 원하는 장교 자질은 물론 사회를 이끌어 나갈 품성과 리더십,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올해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동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첫 여성 학군 대대장 유현경 소위



▲ 이 총장 위문품을 받고 기뻐하는 후보생들



▲ 학군단 23기 남영신 대장

비(非)사관학교 출신 최초 육군참모총장

동아대가 창군 이래 최초 비(非)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남영신 대장이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육군참모총장은 인사·군수 등 군정권을 가진 국군 현역 서열 2위이자, 육군 서열 1위다. 그동안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줄곧 맡아왔다.

동아대 교육학과 81학번이자 학군단 23기인 남영신 장군은 지난 1985년 보병 소위로 임관, 육군 제3군단 작전참모와 제7공수특전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3사단장, 특수전사령관,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역사상 학군단 출신으로 대장(4성) 계급까지 오른 장군은 7명에 불과한데 남 대장이 그중 1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 학군단 30기 이종언 준장

군 장성 4명 배출, 국력 강화 기여

이종언 동문(물리학과 87학번, 학군 30기)이 지난해 12월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동문 역사상 네 번째 장군이 탄생했다.

야전부대 인사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는 이종언 준장은 지난 1992년 포병 소위로 임관, 약 30년간 전방 포병여단 포병단장과 군단 인사처장, 육군본부 안전정책교육과장, 지상작전사령부 인사근무과장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를 아우르며 지휘관과 인사 관련 직위를 주로 역임했다. 이 준장은 “대학과 동문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부여된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 학군단은 지난 2009년 첫 장군인 정종민 예비역 소장을 배출한 데 이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고현석 3포병여단장(준장, 산업공학과 87학번·학군 29기), 이종언 준장까지 4명의 장성을 배출했다.



▲ 2018년 5월 개관한 학군단 역사관



▲ 남영신 대장과 학군 후보생들



▲ 하계전투지휘자훈련 출정식



▲ 승학캠퍼스 학군단 건물

60여년역사 동아대 학군단 명문의 전통 이어가다

지난 1961년 우리나라에 처음 창설된 16개 학군단 중 하나인 동아대학교 학군단엔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는다. 1981년 학군단 동문회 최초 창설, ROTC 최초 공병 병과장 배출, 2018년 전국 학군단 중 최대 규모의 역사관 최초 개관 등이 그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엔 '창군 이래 최초 비(非)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배출'이란 엄청난 타이틀까지 달게 됐다.

수많은 장교를 길러낸 산실

동아대 학군단(단장 국민수 대령)이 '비육사 출신 최초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하는 등 명문 학군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남영신(교육학과 81학번, 학군 23기) 육군참모총장은 동아대 출신 최초의 4성 장군이자 ROTC 역사에서 일곱 번째 4성 장군에 해당한다.

동아대 학군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장교를 길러냈다. 특히 지난 2009년 첫 장군인 정종민 예비역 소장(토목공학과 78학번, 학군 20기)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인 남영신 대장, 고현석 준장(산업공학과 87학번, 학군 29기), 이종언 준장(물리학과 87학번, 학군 30기)까지 4명의 장군을 배출했으며, 지난해 임관한 58기 소위까지 전국 각지 최일선에서 수 백여 명의 동아대 출신 장교가 근무 중이다. 선배들 못지않게 후보생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육군교육사령부 최우수학군단 선정(통산 10회)을 비롯해 교육사열 우승 11회, 하계입영훈련 1위 8회, 임관성적 1위 대통령상 수상자 3명 배출, 지난해 기초군사훈련 및 하계전투지휘자훈련 상위권 다수 포진 등 우수 학군단의 전통을 자랑한다.



▲ 지난해 9월 남영신 대장 취임식

부산·경남 최다 여학생 학군 장교

동아대 학군단은 지난 2012년 입단한 52기부터 여학생에게 문을 연 후 여자 학군 장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부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학생을 선발, 2020년 기준 학군사관후보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는다.

대학별 정원에 따라 선발하는 남자 후보생과는 달리 여자 후보생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나뉜 정원을 각 대학 여학생 간 통합 경쟁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경쟁이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동아 학군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 후보생이 대대장으로 임명돼 큰 화제가 됐다. 주인공인 유현경 소위(독어독문학과 16학번, 학군 58기)는 2019년 1학기에 대대장이 돼 뛰어난 리더십으로 동기 후보생들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대장은 해당 학년 후보생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로,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학과성과 훈련성적, 체력, 동기 평가 등을 종합해 교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학군단장이 최종 선발해 임명한다. 유 소위는 학업과 학군단 역할을 충실히 해낸 후 지난해 3월 소위로 임관, 오는 3월 중위로 진급한다.



▲ 첫 여성 학군 대대장 유현경 소위



▲ 이 총장 위문품을 받고 기뻐하는 후보생들

든든, 탄탄한 학교 지원

학군단의 이러한 성과 바탕엔 학교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 동아대는 학군단을 대학 총장 직속기구로 두고 입영 훈련과 국내외 탐방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예산, 후보생 장학금, 교육장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부임한 이해우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학군단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하계전투지휘자훈련 기간에 코로나19와 장마로 후보생 격려방문 일정이 취소되자 직접 쓴 메시지를 담아 위문품과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동문 선배들의 후배 사랑도 끈끈하다. 후보생들이 입관종합평가를 준비할 때 선배들이 도시락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으며 각종 전자기기 지원, 후보생 격려방문 정례화 및 격려금 전달, 장학금 및 해외탐방 예산 일부 지원, 동문 선배와의 대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대 학군단의 60여 년 빛나는 역사는 학군단 역사관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역사관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과 대학 지원으로 건립을 추진, 지난 2018년 5월 정식 개관했다. 기부자들의 이름을 비롯해 학군단 연혁과 주요 성과, 역대 동문회장 및 학군단장, 역대 임관자 명단, 연대별 주요 물품, 역대 학군단 복 및 군복 등이 보존돼 있다.

교직원과 학생, 학군단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대학의 명소가 된 학군단 역사관은 ROTC 지원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장교라는 진로를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 학군단장은 “학군장교는 군에서 원하는 장교 자질은 물론 사회를 이끌어 나갈 품성과 리더십,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올해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동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학군단 23기 남영신 대장

비(非)사관학교 출신 최초 육군참모총장

동아대가 창군 이래 최초 비(非)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남영신 대장이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육군참모총장은 인사·군수 등 군정권을 가진 국군 현역 서열 2위이자, 육군 서열 1위다. 그동안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줄곧 맡아왔다.

동아대 교육학과 81학번이자 학군단 23기인 남영신 장군은 지난 1985년 보병 소위로 임관, 육군 제3군단 작전참모와 제7공수특전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3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역사상 학군단 출신으로 대장(4성) 계급까지 오른 장군은 7명에 불과한데 남 대장이 그중 1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 학군단 30기 이종언 준장

군 장성 4명 배출, 국력 강화 기여

이종언 동문(물리학과 87학번, 학군 30기)이 지난해 12월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동문 역사상 네 번째 장군이 탄생했다.

야전부대 인사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는 이종언 준장은 지난 1992년 포병 소위로 임관, 약 30년간 전방 포병여단 포병단장과 군단 인사처장, 육군본부 안전정책교육과장, 지상작전사령부 인사근무과장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를 아우르며 지휘관과 인사 관련 직위를 주로 역임했다. 이 준장은 “대학과 동문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부여된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 학군단은 지난 2009년 첫 장군인 정종민 예비역 소장을 배출한 데 이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고현석 3포병여단장(준장, 산업공학과 87학번·학군 29기), 이종언 준장까지 4명의 장성을 배출했다.



▲ 석당학술상 수상자 기념촬영



▲ 이해우 총장의 개교 74주년 기념사 모습



▲ 왼쪽부터 홍순헌, 최영일, 곽신애, 고현석, 김봉수, 김미애, 장인화 동문

1 석당학술상·공로상 등 시상 개교 74주년 기념식 개최

동아대는 지난해 10월 30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교직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표창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7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이 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가 2020년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됐지만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대학은 크고 작은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며 “학생 취업지원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동아 브랜드 개발,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계승 및 발전, 노사관계 정상화 등 미래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화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에 바른손이엔에이 대표이사과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를 국회의원,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기초원천연구정책관),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 고현석 육군 3포병여단장(준장) 등 7명이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다.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 ‘학술상’ 부문은 노희태(체육학과) 교수와 김오연(식품영양학과) 교수, ‘특별상’ 부문은 진병래(응용생물공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학교의 미래를 빛낼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아미래인재상’은 정민기(의약생명공학과 3) 학생에게 돌아갔다. 정민기 학생은 교육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적과 뛰어난 리더십, 성실함을 인정받아 육군훈련소장상과 중앙소방학교장상 등을 수상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이선우 응용생물공학과 교수(생명자원과학대학장)와 정동식 의학과 교수, 황지현 한림생활관장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유치, 정 교수와 황 관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공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박수천(한국어문학과) 교수 등 11명의 교원과 하광봉 학생복지과장 등 7명의 직원이 30년 근속상을,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1명의 교원과 김대준 교무과장 등 7명의 직원이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황정후(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한진섭(학사관리과)·나웅(대의협력과)·정성원(산학협력단 연구개발지원실) 팀장과 진영주(건설과)·박미향(한림생활관)·조상호(관리과) 직원 등 7명은 ‘모범직원상’을 받았으며 이재은(연구지원실)·김지현(취업지원실)·유혜린(기획과)·오수연(국제교류과)·김윤진(기초교양대학 행정지원실)·공미정(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직원 등 6명은 ‘올해의 직원상’을 수상했다.

2 개교 74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7명 선정

동아대를 빛낸 각계각층의 7명의 동문이 개교 74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30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곽신애 (주)바른손이엔에이 대표는 영화 ‘기생충’ 제작자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과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등 국내외의 유수의 영화상을 휩쓸었다. 곽 대표는 지난 1991년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29세에 법학과 97학번으로 입학해 34세에 사법고시에 합격,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작년 4.15 총선에서 당선했다. ‘방직공장 출신 변호사,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란 인생 역경을 딛고 국회에 입성해 화제가 됐으며, 변호사 시절 지극한 애교심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여러 차례 기부하기도 했다.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역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1994년(미국)·1998년(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은퇴 이후 모교의 축구부 감독을 맡기도 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무역학과를 졸업한 장인화 동일철강 대표이사는 초대 민선 회장이자 제26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에 선출됐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토목공학과 학석·박사 출신이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도시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동아대 ROTC 역사상 세 번째 장군 고현석 육군 3포병여단장(준장)은 산업공학과 87학번이자 학군단 29기 출신으로, 2019년 11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동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제28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 과기부·외교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최근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 모습



▲ 수상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오른쪽)과 이해우 총장(왼쪽)



▲ 삼성중공업을 방문한 이 총장



▲ 삼성중공업-학교 관계자들



▲ 하이브리드형 첨단강의실 개소식

3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 ‘동아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 캠페인’ 전개

동아대는 지난해 10월부터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돕기 위한 ‘동아 제자사랑 1교수 1제자 취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교수들이 가진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채용전형 일정에 맞춘 취업 조언 및 상담, 학과별 취업 대상자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졸업생 미취업자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해우 총장은 지난해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코로나19로 강의와 연구 활동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교수님들께 어려운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취업과 관련해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며 동아 1교수 1제자 취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이는 이 총장이 취임 당시부터 “교수가 한 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며 “총장부터 솔선수범해 발로 뛰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된다.

이 총장과 학생·취업지원처장 등은 지난해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부산 강서구 리노공업 등에 방문한 데 이어, 올해도 동아대 졸업생이 많이 진출한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 방문 활동을 이어나간다. 또한, 대학 교육 개선 방안을 수립, 이를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해 나가고 산학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학교 관계자들

한편 동아대는 졸업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선순환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이미 많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구축한 실시간 온라인 취업멘토링 플랫폼 ‘다잇다(DA-ITDAA)’는 분야별 재직 선배들과 후배들을 이어주며 부산시 취·창업 특화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년별·분야별 취업 동아리 및 선배 참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미국·일본 취업준비반, 공기업 취업준비반, 영어·인적성 성적 향상 동아리, 취업 동아리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4 하이브리드 강의실·클라우드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캠퍼스 인프라 구축 활발

동아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캠퍼스 인프라 구축에 활발히 나섰다.

지난해 11월 2일 인문과학대학 7층에서 지역 대학 최초로 온·오프라인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자동녹화 첨단 강의실’ 개소식을 열었다. 자동녹화강의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기를 맞아 지식 확산과 공유를 위한 On-learning 체계 강화 및 O2O(Online to Offline) 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강의와 동시에 실시간 화상(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고화질 동영상 수업을 촬영해 제공할 수 있다. 또 추적 카메라가 강연자의 움직임에 따라 강의와 판서를 촬영할 수 있어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동아대 교육혁신원(원장 김형빈)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단과대학별 인원에 맞춰 모두 20곳의 강의실에 자동녹화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15곳을 더 구축했으며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공간 효율성 증대, 교육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강의실 설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현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아대는 NDS(대표이사 김중원)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조 설계 및 로드맵 수립 컨설팅 사업에 착수했다. 학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트래픽(Traffic: 전송 데이터 양)과 코로나19 환경에서 온라인 동영상 수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아대는 NDS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학사행정시스템의 업무시스템별 클라우드 이관을 분석,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설계 및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 수립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박병권 4차산업혁신신도대학사업단장은 “우리 학교는 2019년 교육부 지원 4차 산업혁명 혁신신도대학에 선정되는 등 IT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최적의 업무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엔 아마존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개소해 첨단 캠퍼스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동아대는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 대학 연구역량과 AWS 프로그램 결합을 통해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승학캠퍼스 뉴턴의 사과나무 조형물 드림



▲ BB21플러스 사업 우수사업단에 선정된 조종현 교수, 김요연 교수



▲영양사교육과정 평가 인증을 획득한 식품영양학과 교수진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주관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A등급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해당 평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9개월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과 연구비 집행 투명성 등 대학 연구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지원 역량을 평가한 것이다. 동아대는 20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는 명칭으로 이뤄진 같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직무교육 확대와 인사제도 개선, 산학연구시스템 개선, 연구자 설문조사 실시 및 의견 반영 등 연구활동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점수 산학협력단장은 "2회 연속 A등급 대학에 선정된 것은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역량과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지원실 진유희 담당자는 "이번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는 기존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정부의 R&D제도 방향이 반영됐고 개편된 평가지표가 매우 까다롭게 바뀌어 전국적으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대학이 한 곳도 없었다"며 "A등급을 얻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6 '고령친화 바이오소재'·'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사업단 BB21플러스 우수사업단 선정

지난해 9월 동아대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과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사업단' 등 2개 사업이 부산시 'BB21+사업' 2차년도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BB21+(Brain Busan21플러스)는 부산시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로 부산지역 내 기업·단체·기관 간 협업 및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2개 사업단은 각각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으며, 특히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은 3차년도 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비 5,600만 원을 받았다.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은 현재 로컬소재를 중심으로 고령친화 바이오 소재 발굴과 기능성 규명 등 학술적인 연구성과와 더불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SCI급 논문과 JCR 학문분야 상위 25% 이내인 Q1급 논문 등을 발표해왔다.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사업단의 경우 선도 물질 및 신약 후보 물질을 창출해 효능이 탁월한 새로운 RNA/DNA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를 연구하며 신약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SCI급 논문 10편과 국내외 학회 논문 등 활발한 학술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7 식품영양학과 지역 최초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 획득

지난해 10월 동아대 식품영양학과가 부산지역 최초로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식품영양학과는 동아대 학과 평가 최우수학과(2015~2019)와 취업률 우수학과(2017,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2015, 2019) 등에 선정되던 이어,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실시됐으며, 동아대는 '2020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에서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의 평가영역 15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평가인증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안복련 교수는 "학과에서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영양사교육과정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인증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이다.

8 노사 협상 타결 2020학년도 단체협약 체결

동아대의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학교와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의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0월 21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해우 총장과 박녕쿨 지부장, 이동대 교학부총장,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교섭위원들과 학교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식은 동아대 노사가 그동안 쌓인 갈등의 고리를 풀어내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 총장은 "단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대학과 노동조합이 새로운 출발을 해서 동아대 발전을 기원하는 한 가족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대학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고통의 과정을 겪고 어렵게 협약이 성사된 만큼 지역 명문 사립대학이자 '동좌문도'란 민주적 가치를 기초로 설립된 동아대 노사 간 신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대는 지난해 3월 이후 노사 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이날 단체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



▲ 2020학년도 단체협약 체결식



▲ 포럼 진행 모습

9 '뉴 노멀 시대,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혁신 방향'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개최

동아대는 지난 1월 26일 2020학년도 대학혁신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대학혁신사업단(단장 이정규)이 주최·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대학혁신지원사업)이 후원한 이날 포럼은 '뉴 노멀 시대,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혁신 방향'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사업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 총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공감하고 의견을 펼치는 자리가 대학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기조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앙과 지방의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이어 김기환 부산광역시 성장전략국장과 이수정 아마존 웹서비스 공공부문 상무가 각각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구축 방안'과 '클라우드 기반 대학 혁신 사례' 주제로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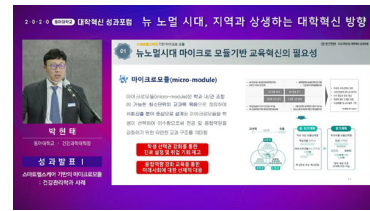
이날 동아대 대학혁신사업 우수성과로 건강관리학과와 '스마트헬스케어 기반의 마이크로모듈'(박현태 건강과학대학장)과 취업지원실의 '뉴 노멀 취업지원: DAU 언택트 프로그램 운영 사례'(이인용 취업지원실 팀장)가 발표됐다.

건강관리학과와 마이크로 모듈 구성 과정과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 사례, 취업지원실의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화상 면접실, 온라인 통합상담, AI 면접실, 온라인 취업캠프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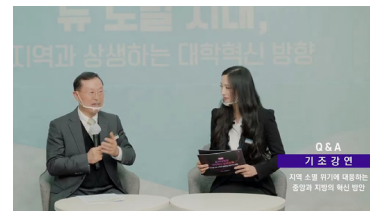
한편 지난 2018년 시범(PILOT)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동아대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와 대학혁신사업을 연계, △교육 부문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키우는 BEYOND 교육 혁신' △연구 부문 '선도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모델 혁신' △산학협력 부문 '지역산업과 상생·발전하는 취·창업 지원체계 혁신' △경영 및 글로벌 부문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 4대 영역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설계해 추진해오고 있다.



▲ 환영사를 하는 이총장



▲ 포럼 유튜브 생중계 화면



▲ 유튜브 생중계 촬영

10 승효상·김기수·김재일·박은주 교수 정부 훈장 및 장관 표창 수상

동아대 교수들이 잇따라 정부 훈장과 장관 표창을 수상해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건축학과 석좌교수인 승효상 건축가는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문화훈장 가운데 하나다. 승 석좌교수는 지난 2011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초대 서울시 총괄 건축가, 2018-2020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향로표지포럼 행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한국 등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 활용을 위한 활동 등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등대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보존연구에 기여해 왔다.

김재일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동아대 창업지원단장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단 부단장 등을 맡아 지역 창업기업 발굴과 지원,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공을 세운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부산 초기창업패키지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주관기관들과 협업, 부산 창업 정책 수립 및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 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책임자로 166팀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발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업자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박은주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니폼 심의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 및 기본이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 방향과 콘셉트 선정,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 승효상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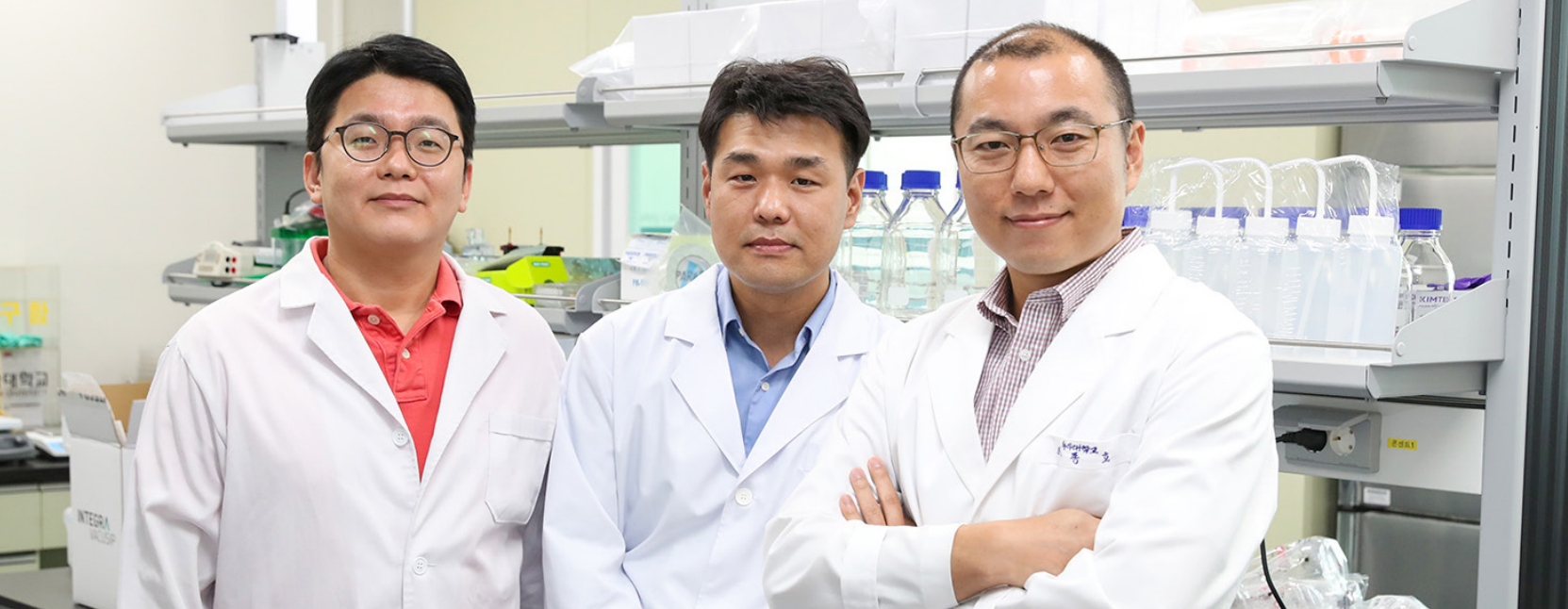
▲ 김기수 교수



▲ 김재일 교수



▲ 박은주 교수



▲ 왼쪽부터 박명기, 김혁순, 이종호 교수

11 젊은 교수 5명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및 '최초혁신실험실' 선정 겹경사

동아대 젊은 교수들이 한국연구재단의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에 이어 '최초혁신실험실' 사업에도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의 대학 이공분야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 중 별도의 심사를 통해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에도 추가 선정된 것이다.

지난 2019년 동아대에 임용된 이종호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는 '조절 T세포에 의한 암세포 대사변화 연구'를 수행한다. 그는 이번 연구에 이어 제4세대 항암제인 대사항암제에 대한 표적 발굴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아대에 임용된 김혁순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는 '염증 및 암질환 내 신규 선천성 면역조절세포의 기능 연구'를 진행한다. '조절 B세포'와 '조절 선천성 림프구' 등 면역조절 연구 전문가인 김 교수는 염증질환과 암질환처럼 질환별 면역반응 제어 기전이 서로 상이한 질환 내에서 새롭게 발견한 면역세포인 선천성 면역조절세포의 기능규명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 화학과 교수는 '초저주파수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미세 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 지난 2018년 동아대에 부임한 그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높은 광변환 효율에 대한 광화학을 밝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동아대에 임용된 이보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초혁신실험실 사업으로 '부산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의 체내 효능 향상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다양한 만성질환에서의 장내 미생물 영향에 대한 질병기전 연구, 개인 맞춤형 유산균 및 식품과의 조합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연구 플랫폼 구축 등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 질병기전 연구 분야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이보경 교수

신정은 의과대학 분자신경학교실 교수도 최초혁신실험실 사업에 선정돼 자동화 라이브 이미징 장비를 통한 유전자 및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 교수의 논문은 줄기세포표지자와 신경재생의 관련성을 밝힌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인정받아 PNAS 117권 27호 표지에 게재됐다. PNAS는 'Nature', 'Science'와 함께 3대 다학제과학저널로 꼽히고 있다.



▲ 신정은 교수

12 각 분야 교수들 학술상 및 공로상 수상 줄이어

동아대 교수들이 각 분야 학술단체에서 잇따라 학술상과 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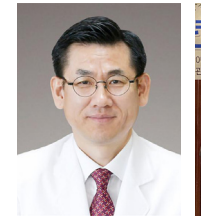
안희배 의료원장은 지난해 11월 대한안과학회로부터 '엘러간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한안과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KJO'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전기공학과 장정환 교수는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 분야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기학회의 '황영문 학술상'을 받았다. 성이용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 등에 10여년간 논문 34편을 게재하고 다양한 건축단체 활동을 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020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경찰·소방학과 라광현 교수는 지난해 경찰학 분야에서 학술 가치가 우수한 논문 발표와 학술대회 활동으로 한국경찰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한편 국제무역학과 문철주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한중국어학회로부터 2020년 공로상을 받았다. 이는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제정된 것이다. 건강과학과 염창홍 교수는 '2020년 부산지역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염 교수는 '건강데이터 유효성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을 수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데이터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및 통합 DB 구축'의 성과를 이뤄냈다.

13 산학협력 활성화 및 혁신인재 양성 기관 및 지자체와 잇따른 협약 체결

우리 대학교가 지역 기관 및 지자체와 잇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 및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협약을 체결해 산업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서 12월에는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도심항공공모빌리티(UAM)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심항공공모빌리티(UAM) 해양 운용 기체 및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관련 소재부품 생태계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는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AI기반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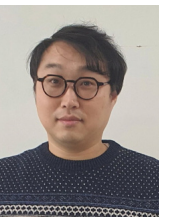
▲ 안희배 의료원장



▲ 장정환 교수(왼쪽)



▲ 성이용 교수



▲ 라광현 교수



▲ 문철주 교수



▲ 부산형 도심항공공모빌리티 기반 조성 협약식



▲ 항만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협약식



▲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학생들



▲ 신소재공학과 학생 및 관계자들



▲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 목판본 내지

14 대학원생 및 학부생 각종 경진대회에서 '장관상' 등 수상 활약

동아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각종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비롯한 상을 받는 활약을 펼쳤다.

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회 이영웅 박사과정생은 '일상적 긴급상황 대응에서의 정보공유네트워크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제난안전논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너울' 팀은 '지능로봇기반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KABOAT)'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모두 4개의 상을 받는 활약을 펼쳤다.

국제대회에서도 동아대 학생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세계철강협회의 'Steel Challenge' 권역별 챔피언십을 2년 연속 휩쓰는 동시에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산업디자인학과 신지현 학생은 '아름답지만 끝까지 손에 넣을 수 없는 돈의 덧없음'이란 주제를 비눗방울로 형상화해 'JAGDA 국제 학생 포스터 어워드' 동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전공지식을 활용한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부산미래과학자상을 수상한 6명을 살펴보면 박사과정 이학 부문 최우수상 조아라(생명과학과), 석사과정 공학 부문 우수상 김동현(금속공학과), 대학생논문상 이학부문 최우수상 박용우·김승윤·장소정·이재선(신소재물리학과) 팀이 있다. '대한전기학회 경진대회'에서는 동아대 전기공학과 '딴다 신재생에너지팀'이 자체 제작한 발전기로 큰 호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고, '부산코딩 경진대회'에서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상을 받았다. 기계공학과 조승현 학생은 제1회 'CDS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식품영양학과 윤정현 박사과정생은 제1회 'BB21플러스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식품 및 바이오 분야 1위로 우수상을, 의약생명공학과 학생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에서 우수상을, 기업재난관리학과 김정훈 박사과정생은 제10회 '대학원생 KIPA-KAPS 정책연구 발표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업재난관리학과 이주연(박사과정)·김예슬·임남영(석사과정)의 '길치의 여정' 팀은 '서비스 R&D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을, 전기공학과 대학원 재학생들은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화학과 대학원생·학부생 팀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 전기공학과 '딴다 신재생에너지팀'



▲ 조승현 학생(왼쪽에서 두 번째)



▲ 의약생명공학과 학생들

15 석당박물관 소장 유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유물들이 올해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석당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사(高麗史)'가 지난 2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2115-4호)로 지정됐다.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장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문종 1)에 기전체로 편찬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사는 한국학 연구의 필수 자료로 고려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사료다.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 139권 75책은 1455년 을해자(乙亥字)본을 번각(뒤집어 다시 새김)한 목판본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각 표지의 좌상단에는 '여사(麗史)'라는 표제가 있고, 그 아래에는 권차 표시 대신 고려사의 총권차 표시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이는 1960~1972년까지 남한 최초로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에서 진행된 <역주 고려사> 간행의 기초가 된 유물이다. 동아대의 고려사 연구는 이후 2001년~2011년까지 고려사 모든 판본을 비교해 오탈자를 바로잡고 세밀하게 주석을 달아 <국역 고려사> 30책 완간해 일반인 및 학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屏風)' 1좌(4폭)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80호로 지정됐다. 이는 선조 연간(1567~1608) 공신 관련 그림으로 제작시기가 명확해 연도를 알 수 있는 작품(기년작)이 드문 17세기 회화 양식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준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녹훈(錄勳: 공훈이 있음을 기록)된 구공신(舊功臣: 전(前)왕 때 공신 칭호를 받은 사람)과 신공신(新功臣)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충훈부(忠勳府: 조선시대 공신 사무를 관장했던 관서)에서 상회연(相會宴: 공신들의 모임을 진행한 장면을 그린 기록화. 4폭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왼쪽 제1폭은 상회연 장면을 그렸고, 제2~제3폭에 걸쳐 참가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으며, 제4폭은 제목을 제외하고 내용은 비어 있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김기수 석당박물관장은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학술연구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한 정부와 학교 방침에 따라 안전한 전시환경으로 단계적 개방을 준비해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Dong-A People

1985.08.15
송학캠퍼스에 대학본부 및 문과대학 이전



1996
송학캠퍼스 전경



2014.12.11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1985.08.15 하단캠퍼스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 건물 준공 및 이전
1985.11.15 국민윤리학과 신설
1990.11.15
1996.11.15
1998.10.15



한계를 넘어 정상으로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동문

영화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아시아 여성 제작자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우리 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모교 방문은 졸업 후 30여 년 만의 일이었기에 곽 대표의 감회는 남달랐다.

인생의 황금기, 동아

“졸업 이후로 영화와 아이에만 집중하며 사느라 개인 시간을 거의 못 가졌어요. 오랜만에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들었던 건물, 꿈을 가지고 거닐던 교정을 둘러보니 아름다웠던 청춘의 기억들이 엇그제 일처럼 되살아나서 행복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학교를 방문한 곽신애 대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운을 댔다. 지난해 10월 곽 대표는 개교 74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으로 선정됐다. 국어국문학과(現 한국어문학과) 87학번인 곽 대표는 모교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했다. 1학년 시절 신나게 보낸 시간은 나머지 3년의 에너지가 됐다. 동기들과 당시 240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이동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놀던 일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기억을 꺼냈다. 이듬해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아대 신문방송학과(現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생긴 뒤에는 방송, 영화 등 개론 수업을 들으며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광고학 수업은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곽 대표가 청춘을 보낸 모교는 졸업 후 일을 할 때에도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연예 기획사 ‘나무엑터스’의 김종도 대표.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김 대표가 동향 출신임을 알게 된 후, 사투리로 신나게 대화하며 회포를 풀곤 했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특별한 인연임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가까워져 타향살이 속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의 꿈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의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이는 우리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일이기도 했지만 오스카상에도 큰 획을 그었다. ‘동아’라는 두 글자를 세계에 새긴 일대 사건이었다. 곽 대표에게 수상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기생충이 여러 나라에 수출돼 며천다이징(상품화 계획), 저작권 업무 등 연관된 일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 준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감독님들도 만났구요.” 항상 바쁘게 사는 곽 대표는 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 책과 영화를 틈틈이 접하며, 필라테스와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영화 마케팅 업무를 10년 정도 했어요. ‘해피엔드’로 시작



▲ 개교 74주년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는 곽 대표

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 했죠. 그러다 50세가 돼서 제작자가 됐어요. 첫 제작 영화는 ‘가려진 시간’이었는데 흥행이 잘 안 돼서 앞으로 계속 해도 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봉준호 감독님과 일할 기회가 생겨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하고 기생충을 제작했어요. 제작자로서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인 동시에 우리 영화계의 자산이 됐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곽 대표의 오빠는 곽경택 감독, 배우자는 정지우 감독이다.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고민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일 때 같은 길을 걷는 가족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일이 아닌 일상 대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직 어떤 길을 가야할지 정하지 못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밤을 새도 지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면서 오래 흥미를 가지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직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해 40세까지 직장을 다니다 이후에 소설가를 꿈꿨죠. 그러다보니 출판계에 관심이 생겼고 졸업 후 부산 출판아카데미 1기로 들어갔어요. 강사님이 ‘글을 잘 쓰는데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제안하셔서 출판대행사, 드라마 외주제작사, 영화잡지사로 경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좋아하면서도 잘 하는 글쓰기 덕분이었어요. 때문에 영화 기획안도 잘 쓸 수 있었죠.” 동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겠다는 곽 대표의 미소 속에서 다부진 의지가 느껴졌다.



▲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과 기념 촬영 ©연합뉴스



한계를 넘어 정상으로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동문

영화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아시아 여성 제작자의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우리 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모교 방문은 졸업 후 30여 년 만의 일이었기에 곽 대표의 감회는 남달랐다.

인생의 황금기, 동아

“졸업 이후로 영화와 아이에만 집중하며 사느라 개인 시간을 거의 못 가졌어요. 오랜만에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듣던 건물, 꿈을 가지고 거닐던 교정을 둘러보니 아름다웠던 청춘의 기억들이 엇그제 일처럼 되살아나서 행복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학교를 방문한 곽신애 대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운을 뚫다. 지난해 10월 곽 대표는 개교 74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으로 선정됐다. 국어국문학과(現 한국어문학과) 87학번인 곽 대표는 모교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했다. 1학년 시절 신나게 보낸 시간은 나머지 3년의 에너지가 됐다. 동기들과 당시 240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이동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놀던 일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기억을 꺼냈다. 이듬해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아대 신문방송학과(現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생긴 뒤에는 방송, 영화 등 개론 수업을 들으며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광고학 수업은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곽 대표가 청춘을 보낸 모교는 졸업 후 일을 할 때에도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연예 기획사 ‘나무엑터스’의 김종도 대표.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김 대표가 동향 출신임을 알게 된 후, 사투리로 신나게 대화하며 회포를 풀곤 했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던 특별한 인연임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가까워져 타향살이 속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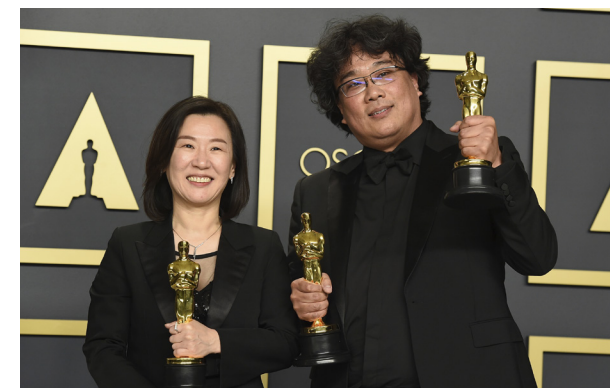
지치지 않는 열정의 꿈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의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이는 우리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일이기도 했지만 오스카상에도 큰 획을 그었다. ‘동아’라는 두 글자를 세계에 새긴 일대 사건이었다. 곽 대표에게 수상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기생충이 여러 나라에 수출돼 며친다이징(상품화 계획), 저작권 업무 등 연관된 일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 준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감독님들도 만났구요.” 항상 바쁘게 사는 곽 대표는 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 책과 영화를 틈틈이 접하며, 필라테스와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영화 마케팅 업무를 10년 정도 했어요. ‘해피엔드’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 했죠. 그러다 50세가 돼서 제작자가 됐어요. 첫 제작 영화는 ‘가려진 시간’이

었는데 흥행이 잘 안 돼서 앞으로 계속 해도 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봉준호 감독님과 일할 기회가 생겨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하고 기생충을 제작했어요. 제작자로서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인 동시에 우리 영화계의 자산이 됐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곽 대표의 오빠는 곽경택 감독, 배우자는 정지우 감독이다.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고민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일 때 같은 길을 걷는 가족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일이 아닌 일상 대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덧붙였다. 아직 어떤 길을 가야할지 정하지 못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밤을 새도 지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면서 오래 흥미를 가지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직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해 40세까지 직장을 다니다 이후에 소설가를 꿈꿨죠. 그러다보니 출판계에 관심이 생겼고 졸업 후 부산 출판아카데미 1기로 들어갔어요. 강사님이 ‘글을 잘 쓰는데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제안 하셔서 출판대행사, 드라마 외주제작사, 영화잡지사로 경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좋아하면서도 잘 하는 글쓰기 덕분이었어요. 때문에 영화 기획안도 잘 쓸 수 있었죠.” 동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겠다는 곽 대표의 미소 속에서 다부진 의지가 느껴졌다.



▲ 개교 74주년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는 곽 대표



▲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과 기념 촬영 ©연합뉴스



불안의 시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

식품영양학과 김오연 교수

김오연 교수는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석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석당학술상은 학문연구 등 활동으로 학문발전 및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여성 교원 수상은 10년 만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석당학술상으로 이어진 연구

석당학술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뻐다는 김오연 교수는 수상 소식에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여성 교원 수상이 흔치 않았기에 더욱 영광스러웠다고. “저도 기뻐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공계 여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는 “동료 교수, 제자들을 비롯해 주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다”고 말했다.

건강과 보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 교수는 내 몸을 이루는 영양소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진로를 식품영양학과로 선택했다. 각 영양소에 대한 이해 유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영양소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임상영양학 영역을 연구하고 있는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영양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만성퇴행성질환,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영양학과 연결시켜, 질병에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커를 발굴한 것이다. 해당 연구와 관련된 SCI(E)급 논문 28편을 게재했으며, 논문 중 13편은 JCR 랭킹 상위 25%(Q1) 이내, 2편은 상위 7% 이내에 들었다.

영양학에 AI, 빅데이터 접목

김 교수는 2018년~2019년 ‘Brain Busan 21+(BB21+)’의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BB21+

는 지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5, 6단계에 연속으로 선발됐다.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은 지역사회 유망 바이오소재를 일상생활의 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실용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와 함께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 학생들은 논문 발표로 많은 상을 거머쥐었다. BB21+의 성공적인 수행은 취업률 상승, 연구력 제고 등 학과 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현재, BB21+에서 확대된 전국사업단 4단계 ‘Brain Korea 21’에도 참여하게 됐다.

또 김 교수는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15년, 2020년 ‘에너지’ 부분을 맡았다.

“식품영양학은 사람의 생명, 건강, 질병 치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영양학은 각자에게 맞춤 형태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발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AI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영양학과 과학 도구를 접목한다면 효율적인 영양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공부를 할수록 진로 선택 만족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한다. “동아대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가 가능했다”는 김 교수는 석당학술상 상금 전액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해 그 가치를 더 빛내고 있다.



▲ 김 교수 연구실 내부 모습



▲ 김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들



불안의 시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

식품영양학과 김오연 교수

김오연 교수는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석당학술상을 수상했다. 석당학술상은 학문연구 등 활동으로 학문발전 및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여성 교원 수상은 10년 만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석당학술상으로 이어진 연구

석당학술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뻐다는 김오연 교수는 수상 소식에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여성 교원 수상이 흔치 않았기에 더욱 영광스러웠다고. “저도 기뻐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공계 여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는 “동료 교수, 제자들을 비롯해 주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다”고 말했다.

건강과 보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 교수는 내 몸을 이루는 영양소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진로를 식품영양학과로 선택했다. 각 영양소에 대한 이해 유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영양소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임상영양학 영역을 연구하고 있는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바이오파마 개발 및 영양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만성 퇴행성질환,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영양학과 연결시켜, 질병에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커를 발굴할 것이다. 해당 연구와 관련된 SCI(E)급 논문 28편을 게재했으며, 논문 중 13편은 JCR 랭킹 상위 25%(Q1) 이내, 2편은 상위 7% 이내에 들었다.

영양학에 AI, 빅데이터 접목

김 교수는 2018년~2019년 ‘Brain Busan 21+(BB21+)’의 ‘고령친화 바이오표제 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BB21+는 지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5, 6단계에 연속으로 선발됐다. 고령친화 바이오표제 사업단은 지역사회 유망 바이오표제를 일상생활의 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실용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와 함께 사업단에 참여한 교수, 학생들은 논문 발표로 많은 상을 거머쥐었다. BB21+의 성공적인 수행은 취업률 상승, 연구력 제고 등 학과 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현재, BB21+에서 확대된 전



▲ 김 교수 연구실 내부 모습

국사업인 ‘Brain Korea 21’에도 참여하게 됐다. 또 김 교수는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제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15년, 2020년 ‘에너지’ 부분을 맡았다.

“식품영양학은 사람의 생명, 건강, 질병 치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영양학은 각자에게 맞춤 형태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발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AI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영양학과 과학 도구를 접목한다면 효율적인 영양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공부를 할수록 진로 선택 만족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한다. “동아대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가 가능했다”는 김 교수는 석당학술상 상금 전액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해 그 가치를 더 빛내고 있다.

▼ 김 교수와 석 박사 연구원들





성실함에 따뜻함을 더하다

의약생명공학과 정민기 학생

B. 프랭클린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다. 지난해 동아미래인재상을 수상한 정민기 학생은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성실함으로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했다.

교수, 선배들의 응원에 큰 힘

동아미래인재상 수상 연락을 받은 직후 정민기(의약생명공학과 3) 학생은 얼떨떨했다. 지원했던 사실을 잊고 학과 수업에 전념하면서 비교과 프로그램 'DECO'의 일환으로 후배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던 터라 처음에는 DECO 관련 안내인 줄 알았다고 했다.

정 학생이 받은 동아미래인재상은 해마다 전체 재학생 가운데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평균 4.36 학점(4.5 만점)의 우수한 성적, 모범적 군 복무 등으로 학교의 미래로 뽑힌 것.

지난해 10월 30일 선배, 교원들과 함께 했던 '개교 74주년 기념식'은 정 학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자리라 긴장됐다. 이날 무대에서 동아미래인재상을 받고 내려온 그에게 교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30년 뒤에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받기 바란다"며 축하했고, 수상자로 참석했던 선배 김미애 국회의원에 직접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따뜻한 마음의 뉴 리더

부모님은 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 첫 멘토였다. 자녀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정민기 학생과 건강관리학과에 재학 중인 동생 정영석 학생은 주도적 태도와 넓은 시각을 가지며 자랐다. 부산 대신중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김성철 선생님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선생님은 '배려와 행동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알려줬다.

그는 동아 새내기가 된 후 '알파(야구)', '코파(축구)', '동아수

영회', '우리누리(봉사)' 등 무려 4개 동아리에 가입했다. 1학년 내내 오후에 공강 시간이 많아 여러 동아리방을 순회하며 선배들과 가까워졌다. 동아리 선배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동아리를 탈퇴한다고 할 테니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그를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 학업에 충실하도록 지원했다. 선배들의 이런 지지와 그의 굳은 의지 덕분에 1학년 1학기 성적은 '4.5점'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기록했다.

정 학생은 1~2학년 내내 총 256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의 봉사는 주로 학과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이뤄졌다. 1학년 때는 부산 사하구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줬다. 학생들이 정민기 학생의 양팔에 매달려 놀면서 살갑게 굴어 정이 많이 들었다. 그때 연을 맺었던 고등학생은 능률한 대학생이 됐고 얼마 전 입대한다고 연락이 왔다.

2학년 때는 부산 서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생계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그는 큰형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방학 기간 집에서 단둘이 주로 지내는 초등학생 형제를 데리고 남포동 영화박물관에 가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정 학생은 군 복무 중에도 성실함과 배려심, 우수한 기량으로 육군훈련소장, 중앙소방학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야간 근무 중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 각종 공인영어시험 응시를 위한 토대를 닦기도 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쓴 책 '초격차'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저는 매년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초격차로 정했어요. 국내의 어디를 가더라도 뒤처지지 않고 차이 나는 실력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의료 분야의 뉴 리더가 되겠습니다."



▲ 동아미래인재상 수상 모습



▲ '초격차'로 나아가는 정민기 학생



성실함에 따뜻함을 더하다

의약생명공학과 정민기 학생

B. 프랭클린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다. 지난해 동아미래인재상을 수상한 정민기 학생은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성실함으로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했다.

교수, 선배들의 응원에 큰 힘

동아미래인재상 수상 연락을 받은 직후 정민기(의약생명공학과 3) 학생은 얼떨떨했다. 지원했던 사실을 잊고 학과 수업에 전념하면서 비교과 프로그램 'DECO'의 일환으로 후배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던 터라 처음에는 DECO 관련 안내인 줄 알았다고 했다.

정 학생이 받은 동아미래인재상은 해마다 전체 재학생 가운데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평균 4.36 학점(4.5 만점)의 우수한 성적, 모범적 군 복무 등으로 학교의 미래로 뽑힌 것.

지난해 10월 30일 선배, 교원들과 함께 했던 '개교 74주년 기념식'은 정 학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자리라 긴장됐다. 이날 무대에서 동아미래인재상을 받고 내려온 그에게 교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30년 뒤에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받기 바란다"며 축하했고, 수상자로 참석했던 선배 김미애 국회의원도 직접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따뜻한 마음의 뉴 리더

부모님은 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 첫 멘토였다. 자녀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정민기 학생과 건강관리학과에 재학 중인 동생 정영석 학생은 주도적 태도와 넓은 시각을 가지며 자랐다. 부산 대신중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김성철 선생님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선생님은 '배려와 행동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알려줬다.

그는 동아 새내기가 된 후 '알파(야구)', '코파(축구)', '동아수영회', '우리누리(봉사)' 등 무려 4개 동아리에 가입했다. 1학년 내내 오후에 공강 시간이 많아 여러 동아리방을 순회하며 선배들과 가까워졌다. 동아리 선배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동아리를 탈퇴한다고 할 테니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그



'초격차'로 나아가는 정민기 학생

를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 학업에 충실하도록 지원했다. 선배들의 이런 지지와 그의 굳은 의지 덕분에 1학년 1학기 성적은 '4.5점'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기록했다.

정 학생은 1~2학년 내내 총 256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의 봉사는 주로 학과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이뤄졌다. 1학년 때는 부산 사하구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줬다. 학생들이 정민기 학생의 양팔에 매달려 놀면서 살갑게 굴어 정이 많이 들었다. 그때 연을 맺었던 고등학생은 능률한 대학생이 됐고 얼마 전 입대한다고 연락이 왔다.

2학년 때는 부산 서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생계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그는 큰형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방학 기간 집에서 단둘이 주로 지내는 초등학생 형제를 데리고 남포동 영화박물관에 가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정 학생은 군 복무 중에도 성실함과 배려심, 우수한 기량으로 육군훈련소장, 중앙소방학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야간 근무 중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 각종 공인영어시험 응시를 위한 토대를 닦기도 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쓴 책 '초격차'를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저는 매년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초격차로 정했어요. 국내의 어디를 가더라도 뒤처지지 않고 차이 나는 실력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의료 분야의 뉴 리더가 되겠습니다."



▲ 동아미래인재상 수상 모습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해우 총장,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지난 1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염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참여 방법은 비누 거품으로 둘러싸인 두 손 위에 'Stay Strong(견뎌내자)!'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 총장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 새 학기 활기찬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대-수협재단 어업인 다문화가정 지원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28일 수협재단과 공동으로 어업인 다문화가정 200 가구에 KF94 마스크와 즉석식품 등으로 구성된 생활지원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이 총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수협재단 이사장), 황기식 동아대 다문화연구소장, 수협중앙회 관계자, 어업인 다문화가정 부부 등이 참석했다.

어업인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은 동아대와 수협재단이 협력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동아대 다문화연구소는 2019년 4월부터 다문화가정 정책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수협재단은 2009년부터 연간 약 15억 원을 어업인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MBA총동문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총동문회(회장 강호철)는 지난해 12월 부산 서구 아미동 일대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MBA총동문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연말 행사 대신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으고 연탄 3,800장과 쌀 10kg 5포 등을 부산연탄은행에 기부했다. 또 강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부산 서구 아미동 일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배달했다.

강 회장은 "어려운 시국에 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고맙다"며 "뒤편 하나 챙겨주시려고 하는 주민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총 35억 원 규모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동아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학생소통위원회'를 통해 장학금 지급을 논의했으며, 한 달 뒤인 9월 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장학금 명칭은 학생소통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동아 내일을 담다 장학금'으로 정해졌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학기를 이수해 성적을 받은 학부생 중 등록금 실제 부담액이 있는 학생이며, 지난해 10월 말까지 등록금 실제 부담액의 10%를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환경개선 활동 '클린 동아 봉사단 3기' 발대식

동아대는 감염병 위협에서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동아 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미라 학생-취업지원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봉사단 3기는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공과대학생회를 주축으로 40여 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기존 캠퍼스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방역 활동, 건물 출입 관리 및 발열 체크 업무 지원 등 교내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학교는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클린 동아 봉사단'을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공학과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LED가 빛나는 밤에' 봉사활동

동아대 전기공학과 봉사단체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안전 취약계층 가정의 낡은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LED가 빛나는 밤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당 사업은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과 부산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가 체결한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관-산-학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초 열린 협약식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봉사활동은 11월 초부터 재개됐다. 정은호(전기공학과 3) 학생 등 8명은 총 4회에 걸쳐 50여 가구에 LED 전등 교체작업을 진행했다.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지난 2016년 창단된 봉사단체로 LED 전등 교체 외에도 부산 시민 대상 과학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대상 전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주최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대상을 받기도 했다.



산업디자인학과 재능기부 NPO 홍보 디자인 '상상이상' 성료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지난해 사회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NPO 홍보 프로젝트 '상상이상' 디자인 재능기부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LINC+ 사업의 하나로 산업디자인학과 김재홍 교수와 시각미디어전공 3학년생 48명이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힘으로 NPO(비영리민간단체)를 홍보하고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직접 그린 원화를 재해석한 디자인 아트작품을 핸드타월과 파우치 등 굿즈로 제작, 지난해 KT&G상상마당 부산에서 열린 전람회를 통해 선보였다. 굿즈 판매 수익은 비영리민간단체 '이치투게더'에 전액 기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산업디자인학과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불법성매매 근절 등 공익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 지역 상점 홍보물 제작 활동 등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부산은행과 손잡고 '모바일뱅킹 기부 서비스' 도입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과 손잡고 '모바일뱅킹 기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영남지역 최초로 은행시스템과 연계한 대학 발전기금 기부 서비스다. 모바일 뱅킹 기부 서비스는 기존에 전화, 팩스, 방문 신청 등으로 이뤄지던 대학 발전기금 기부방식에 더해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민과 동문, 학생 등의 소액기부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와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우리지역 인재를 응원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아 '동아대 기부' 메뉴를 탑재했다. 지역민과 학생, 교직원 등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체·출금→기부 서비스→동아대학교' 메뉴를 선택, 정기기부 및 1회성 기부 방법으로 동아대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자 예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명으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지 않더라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된 발전기금은 동아대 교육환경개선과 학생 장학금, 교원 확충 및 연구 활성화, 국제화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모바일뱅킹 기부 방법

1.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이체·출금→기부 서비스→동아대학교' 선택
2. '기부하기' 클릭 후 '실명 기부' 또는 '익명 기부' 선택
3. 약관 확인 (약관 동의 시 기부자 예우 서비스 제공)
4. 기부 주기 선택: '매월 정기 기부' 또는 '1회성 기부'
5. 기부 금액 입력 후 완료



홍일석 대방인더스트리 대표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학교 동문인 홍일석 대방인더스트리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이해우 총장 취임 후 이뤄진 첫 기부다. 법학과 80학번인 홍 대표는 동아대를 졸업한 아들(홍준형, 관광경영학과 11학번)과 함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신임 총장님 취임 후 처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본인과 아들뿐 아니라 누나까지 3명이 동아대 출신인 동문 가족으로, 지난 2018년에도 동아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모교 사랑을 나타냈다. 동아대 동문 기업인이 주축이 된 (사)동아비즈니스포럼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홍보이사과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남규 광명잉크(주) 회장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이남규 광명잉크(주) 회장이 지난해 12월 학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 회장은 이로써 현재까지 모교에 모두 4,200만 원을 기부했다. 화학과 출신으로 학군단(ROTC) 6기이기도 한 이 회장은 화학 교사와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지난 1976년 광명잉크(주)를 설립했다.

부산 강서구 광명잉크(주) 본사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 회장은 “모교와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염원을 항상 가슴 속에 담고 있다”며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잉크(주)는 국내 최초로 대두 잉크 개발 및 ‘SOY INK’ 마크를 획득했으며, 500만·1천만·2천만·3천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부산산업대상(2002)과 철 산업 훈장(2014) 등을 수상했고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유동훈 석좌교수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유동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해 7월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경영학과 84학번 동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역임한 후 지난 2017년 부임,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유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모교 발전을 위해 모두 3,300여 만 원을 내렸다. 특히 석좌교수 부임 이후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1988년부터 문화공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 석좌교수는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국민소통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업무 등을 담당해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이철훈 리켄케이코리아(주) 대표이사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이철훈 리켄케이코리아(주) 대표이사가 지난 1월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제13-15대 재부거제향인회장도 역임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지난 2000년 리켄케이코리아(주)를 설립, 가스측정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본사를 둔 리켄케이코리아(주)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와 설치식 가스 측정시스템, 선박용 가스모니터링 시스템을 판매·제조·서비스하며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 해외 서비스망도 구축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동아대 경영대학 발전기금 기부 릴레이 제 5호 기부자로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허훈-배정달-임태분 MBA 동문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MBA 동문인 허훈 (주)호포갈비 대표와 배정달 동화정밀화학(주) 대표, 임태분 천광산업·서림화학(주) 대표가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허훈(33기) 대표와 배정달(35기) 대표, 임태분(43기) 대표는 MBA(경영학석사과정) 마케팅전공을 주축으로 한 모임 ‘동석회’ 일원으로, 지난해 12월 부민캠퍼스 총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허 대표는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경영대학원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꼭 발전기금을 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배 대표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해서 반가웠다. 동문이 강한 동아대 경영대학원에서 유익한 경험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함께 공부한 동문들이 발전기금 기부와 연탄배달 봉사 등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 기쁘다”고 말했다.



**MBA 52기 졸업생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2020년 8월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MBA)을 졸업한 52기 원우 일동이 대학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9월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 양철성(부산시중앙신협 이사장) MBA 52기 원우회장과 김두연((주)보성개발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김현준 경영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 회장과 김 수석부회장은 “총장님과 원장님이 여러 모로 원우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영대학원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학교 발전에 많은 힘이 돼 주는 경영대학원 동문들이 모이는 현장에 자주 참석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와 동문이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일 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의과대학 동문 정세일 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모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석·박사를 모두 동아대에서 졸업한 정 원장의 발전기금 기부는 이번이 세 번째로, 모두 2,5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모교 의과대학 교수 및 동아대병원 주임교수,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정세일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 원장은 “의과대학 1기 졸업생으로 학교 발전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동아대 의과대학 교수 재직 당시 2009년 ‘국제 히포크라테스상’(IBC,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을 수상했고, ‘21세기 대표 지식인’(IBC, 2009), ‘세계 100대 의료인’(ABI 미국인명연구소, 2009), 세계 3대 인명사전(후즈후, IBC, ABI)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김중배 ㈜정진설비 대표이사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중배 ㈜정진설비 대표이사가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6기 출신으로 제40대 AMP동문회장도 역임한 김 대표는 지난 1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며 “학교도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이 아쉽지만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AMP동문회장단 모임인 동경회 회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김영식
(재)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
경영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김영식 (재)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3호 주자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출신(제24대 AMP 총동문회장 역임)이자 명예 경영학박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이 지금까지 모교에 쾌척한 금액은 모두 4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모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3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 경영대 릴레이 기부 33번째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
학군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성우 대신금속 대표가 학군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대표는 전자공학과 동문이자 학군단 15기로, 제18대 동아대 ROTC 총동문회장장과 제26대 대한민국 ROTC 부산지구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재학 시절 학군 후보생으로 고된 훈련을 받으며 보낸 기억이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학군 후보생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발전기금이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동아대 ROTC 역사관 설립기금과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캠페인에도 동참한 바 있다.



류인준 변호사,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법과대학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동문인 류인준 변호사가 로스쿨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10월 스승인 최우용 로스쿨 원장과 함께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이후 동아대 로스쿨 7기로 입학했고, 2018년 4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률사무소 환경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류 변호사는 “46세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기까지 모교 신세를 많이 저 학교에 진 빚을 가장 먼저 갚고 싶었다”고 밝혔다.



안목련 교수
식품영양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안목련 교수가 지난해 8월 식품영양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식품과학과(현 식품영양학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 식품영양학과와 박사학위를 받은 안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 준비위원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 건강과학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발전기금 기부에 오랫동안 뜻을 갖고 있었다”며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가 만들어진 데 이어 동문장학회도 발족해 더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배이자 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라며 학교와 학과 발전을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연 교수
식품영양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석당학술상’을 받은 김오연 교수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영양치료’ 분야를 중점 연구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성과로 자연계열 석당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교원들을 심사해 해마다 개교기념식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동아대 교수의 큰 영예로 꼽힌다.

김 교수는 사흘 뒤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석당학술상을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에 기본 좋게 기부하게 됐다”며 “학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동아대에 임용된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CI 및 SCIE 논문 19편을 발표하는 등 연구 활동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왔다.



김은경 교수
식품영양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이 연이어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김은경 교수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식품영양학과 동문으로 지난해 9월 모교 교수에 임용된 김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스승이자 선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학내 학과평가 최우수학과(2015~2019)와 취업률 우수학과(2017,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2015, 2019) 등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또 ‘FIRST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고령사회 건강 100세 식생활문화 선도 인력양성’을 목표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 및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

캠페인 1단계 목표

완료

동아 교육 혁신

동아 젠틀맨 양성

- 동아형 교양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동아 젠틀맨 양성
- 융합형 전공교육과정 신설
- 미래형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완료

교육인프라 구축

미래교육관 건립

- 교양교육 전용 공간 마련
- 동문 명예의 전당 조성
- 지역과 문화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식의 허브이자 동아의 랜드마크 구축

추진

연구

우수 교원 확보 연구지원 확대

- 세계적 석학 교수 및 최우수 교원 초빙
- 3대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동아 100년 동행,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아는 미래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원들을 영입하고 연구에 집중 투자해 동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및 특성화 연구지원을 통한 Bio big data 분야 선도대학으로 도약

세계적 석학·
최우수 교원 초빙

3대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혁신 플랫폼 구축

완료

미래교육관 건립기금

150억 원 강병중 회장 기부

- 교양교육 전용시설
- 동문 명예의 전당
- 지역 랜드마크

모금 진행중

우수 교원 확보 및 연구지원기금

150억 원

- 세계적 석학 및 최우수 교원 확보
- 특성화 분야 연구 지원
- 연구인프라 확충

총 300억 원
캠페인 1단계 목표 모금액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무통장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온라인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휴대폰 카메라로 읽으면
간편하게 약정 가능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감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신규 후원의 집 소개

제187호
장시영살롱드뷰티
장시영살롱드뷰티는 승학캠퍼스 앞에 위치한 토탈 뷰티샵입니다. 우리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뷰티샵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왁싱, 속눈썹 등 고품격 뷰티 시술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36번길 8 ☎ 051-203-8004

제190호
콩볼 동아대점
승학캠퍼스 입구에 위치한 콩볼 동아대점은 10여 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아온 맛집입니다. 특허받은 흑마늘 콩나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화로 건강과 행복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16번길 55 ☎ 051-904-2211

제188호
여명여행(모두투어)
여명여행은 우리 대학 동문이 직접 운영하는 모두투어 공식예약센터입니다.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 골프여행, 크루즈 등 개인별 맞춤형 여행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5, 4층 ☎ 051-266-0234

제191호
소담
구덕 꽃마을에 위치한 소담은 오리요리와 곤드레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식당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구덕산 등산에 소담의 건강한 요리와 함께하세요.
☎ 부산 서구 엄광산로39번길 18-3 ☎ 051-254-1022

제189호
굿치과의원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는 치과. 당리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한 굿치과의원은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7 ☎ 051-203-2828

제192호
우송정
우수한 품질의 암소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암소한우구이에 정갈한 음식은 가족외식은 물론 회식에도 적합합니다.
☎ 부산 사하구 제석로18번길 75 ☎ 051-202-5570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fund@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 전화 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기부안내

동아의 74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당 1만 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할 뜻 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용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 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방문 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	교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 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 방법

약정 신청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